

“소상공인·중기 지원 강화...지역 상생 밀착 경영”

광주은행,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건전성·영업력 강화 등 5대 방향 성장동력 확보·내실경영 등 주력 고병일 “민생·상생금융 지원 앞장”

광주은행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등 지역 상생 밀착 경영을 다짐했다.

2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간 정읍시에 위치한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는 상반기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점과 직원을 시상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고, 2024년 상반기 경영실적과 하반기 경영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하며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또 임직원들의 ESG 인식 개선을 위해 국민연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ESG모델을 구축한 그린에토스랩 이선경 대표이사를 초청해 ‘국내외 최신 ESG 트렌드와 금융업의 ESG’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고병일 은행장은 “최근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정읍시에 위치한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아우름캠퍼스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국내 기업 이자보상비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한계기업의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권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는 ‘누란지위(累卵之危: 여러 개의 알을 쌓아 놓는 것처럼

위태로운 형태)’의 금융 환경에 놓였다”고 국내 금융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이같은 진단과 함께 하반기 5대 경영 방향으로 △건전성 안정화 △영업력 강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효율적 인력·채널 전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 목표 달성은 자산건전성 관리가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고, 건전성 제

비율 관리 강화와 부동산 PF 연착륙 관리, 컨디션시 플랜(위기관리 계획) 마련, 연체 및 고정이하여신 등 리스크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은행 건전성의 바로미터인 대손충당금 최소화를 통한 철저한 건전성 관리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응한 영업력 증대 △내실성장을 위한 손익 마인드 제고를 통해 100년 은행으로 성장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창립 56주년을 앞두고 있는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시에 빠른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지역경제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올 해 동안 민생금융지원에 293억원, 서민금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이뤄진 상생금융지원에 1조 303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생 밀착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 예술 및 스포츠 분야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1000억원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입하는 등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

역에 환원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이밖에도 1981년 설립한 (재)광주은행 장학회를 통해 현재 4600여명의 지역 장학생들에게 총 39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해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고,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발해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인재 채용에도 앞장서며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광주FC의 2024 시즌 선전을 기원하며 후원금 40억원을 전달했으며, 광주은행 자체 스포츠팀인 ‘텐텐(Ten Ten) 양궁단’과 ‘비츠로 배드민턴단’을 운영하며 지역 스포츠 스타의 성장을 돕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같은 활동에 힘입어 △한국능률협회 선정 지방은행 브랜드파워 7년 연속 1위 △미국 포브스·CNBC 선정 ‘2024 World’s Best Banks’ 국내 3위 달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매년 발표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금융감독원 주관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컨설팅 2년 연속 우수 사례 선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주력산업 수출 ‘희비’

광주 전년비 3.6%↓...반도체 부진 전남 5.3%↑...석유·화학 등 증가세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 주력산업 수출이 감소한 반면 전남 주력산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본부세관은 29일 광주의 수송장비(타이어 포함)·반도체, 전남의 석유제품·화학제품·철강제품 등 6개 분야 주력산업의 상반기 수출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력산업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한 66억 5820만 달러, 전남 주력산업은 5.3% 증가한 194억1911만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은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산업의 더딘 업황 회복으로 수출이 소폭 감소했으며 전남은 석유·화학제품 산업이 수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누계 기준으로 광주지역의 수송장비·반도체 산업 수출은 전체 지역 수출 대

비 78.2%, 전국 동종 산업 대비 10.4%를 차지했다.

전남의 석유·화학·철강제품 산업 수출은 지역 전체 수출 대비 80.5%, 전국 대비 20.8%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광주지역은 수송장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고 반도체(11.0%)는 감소했다.

수송장비는 승용자동차(2.3%)·타이어(1.3%)·화물자동차(19.0%)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자동차부품(39.1%)·기타수송기기(81.7%)는 감소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122.0%)·직접회로 반도체 및 부품(23.6%)·개별소자 반도체 및 부품(20.8%)·실리콘웨이퍼(421.5%) 수출이 증가했고 프로세스와 컨트롤러(11.6%)는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주력산업 수출 추세를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감소했던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수송장비는 2019년도 이

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타이어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다.

반도체는 2019년도부터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2022년도 정점에 이르렀으나 이후 추가적인 상승에는 미치지 못했다.

전남지역은 주력산업인 석유제품(7.7%), 화학공업품(8.4%)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철강제품(3.3%)은 소폭 감소했다.

석유제품은 경유(11.4%)·나프타(19.5%) 등 모든 분야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화학공업품은 인조프라스틱(1.9%)·유기 및 무기화합물(12.3%)·기타 화학제품(50.3%)의 수출이 증가했고 합성수지(0.9%)는 소폭 감소했다. 철강제품은 철강의 판(8.8%) 수출이 감소한 반면 합금강의 판(3.2%)·철강의 괴(18.1%)·기타 금속제품(41.7%)은 모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주력산업의 수출 추세를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감소했던 수출 실적이 2021년도 이후 코로나 이전 실적을 뛰어넘으며 성장세를 유지하다 2023년에는 다소 감소했다. **최권범 기자**

기아 ‘더 뉴 K8’ 티저 이미지 공개...내달 출시



기아가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담은 새로운 K8의 출시를 예고했다.

기아는 29일 ‘더 뉴 K8(The new K8)’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 더 뉴 K8은 기아가 3년 만에 선보이는 K8의 상품성 개선 모델이다.

기아는 이날 티저 이미지를 통해 더 뉴 K8의 전면부와 후면부에 적용한 조명을 중심으로 차량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공개했다.

특히 전면부는 기아 신규 패밀리룩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를 반영한 주간 주행등(DRL)과 범퍼 상단부를 따라 차량을 가로지르는 센터 포지셔

닝 램프가 시각적으로 연결되며 한층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한다.

이날 기아 공식 유튜브 채널 카 TV www.youtube.com/@KiaKorea에 함께 공개된 티저 영상은 밤하늘의 별 형상이 세로형 헤드램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더 뉴 K8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감각적으로 담았다.

기아는 8월 중 상품성을 한층 높인 더 뉴 K8의 디자인과 상세 사양, 가격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노동 칼럼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하여 일할 수 없고, 일정 시간 동안 일하면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받는 유급 보상이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발생한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4주 평균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지각, 조퇴 무관)할 때 발생한다.

주 40시간 일한 노동자가 일주일에 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만큼의 주휴수당을 받

는다. 일반적으로 평일(월~금)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고, 8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노동자라면 위의 경우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주 2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4시간, 주 3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6시간이 발생하는 식이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주당 주휴수당)

월급제 노동자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40시간)과 주휴수당(8시간)이 구분되지 않고 기본급으로 합쳐져 지급된다. 하지만 시급제 노동자는 두 가지 수당이 구분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시급제 노동자가 월급제 노동자보다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이와 관련되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자로서는 일한 시간 외에 받는 수당이므로 받고 싶지만, 반대로 사업주는 일하지도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변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의 일자리(초단시간 노동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

주휴수당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 시간이 아니

주휴수당



이연주 공인노무사

라,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 14시간 일하기로 정했다면, 연장근로등으로 실제로는 주 20시간 일했다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 20시간 일하기로 했다면, 지각 및 조퇴 등으로 실제로 일한 시간은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 20시간 기준의 주휴수당이 전액 발생한다.

간혹 사업장에서 매주 일하는 시간의 20%에 해당하는 만큼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엄밀하게 따지면

맞는 방법은 아니다.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발생 조건을 만족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매주 같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을 약용하여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계약서에 작성한 시간을 다르게 정하는 사업장이 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항상 주 15시간이 넘지만, 의도적으로 계약서는 그보다 적은 시간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월·주 단위 스케줄표 등)를 이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인의 주휴수당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해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센터로 연락주시라. 1588-6546